

# 일본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셔널트레이닝센터 J-Village

고승희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J 빌리지가 위치한 후쿠시마현은 동경전력의 원자력발전소 2개소가 입지하고 있으며, 발전소 입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원3법 같은 정부 차원의 교부금 지원과는 별도로 전력회사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설 투자사업을 직접 벌이고 있는데, J 빌리지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 편집자 주 -



J 빌리지 전경

## 시설 조성의 배경

J빌리지는 후쿠시마현 나라하성(郡)에 설립된 트레이닝센터로 동경전력에서 130억엔을 투자하여 1997년 후쿠시마현에 기부하였으며 총 면적은 약 15만평(50ha)에 달한다.

J빌리지가 10개의 천연잔디 축구장, 스타디움, 전천후 연습장, 숙소, 체력단련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춘 시설로 조성되기에는 전국의 축구 선수 및 관계자, 축구에 관심을 가진 동호인 및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지역의 활성화를 기하려는 동경전력과 해당 지자체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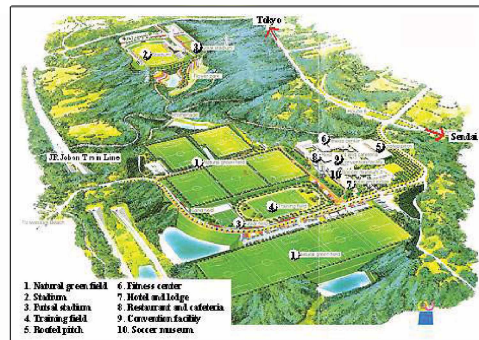
이에 의하여 축구 대표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을 전국 각지에 조성하여 일본의 축구 수준을 격상시키려는 축구협회의 장기 계획이 J 빌리지 조성의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J 빌리지의 위치

## J 빌리지 개요

- 시설 완공 : 1997년
- 위치 : 후쿠시마현 나라하성  
(동경 동북쪽 약 250km에 위치)
- 부지 규모 : 15만 평 (50ha)
- 투자비 : 130억 엔 (동경전력에서 투자하여 조성)



J 빌리지의 조감도

## J 빌리지의 주요 시설 현황

- 국제 규격 천연잔디구장 10개 (68m× 105m)
- 잔디스타디움 1개소 (5천 석 규모, 야간조명시설)
- 트랙경기장 1개소  
(68m× 105m 인조잔디구장 및 4레인 400m 트랙)
- 풋살(Futsal) 경기장 5개소
- 전천후 연습장 (인조잔디, 야간조명시설)
- 체력단련장 (수영장, 헬스장 등)
- 숙박시설 (2~4인용 객실, 260명 수용 규모)



천연 잔디구장



회의장

- 회의장 (160석 규모 회의실, 연회장, 세미나실 등)
- 레스토랑 및 카페테리아, 라운지
- 축구박물관 (3D 영상관, 전시대 등)

**시설 운영 현황**



J빌리지 트로피 전시

현재 J 빌리지는 동경전력과 일본 축구협회, 후쿠시마현이 각각 전체 주식 중 10%씩의 지분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지분은 후쿠시마현 내의 민간 회사들이나 각 시·

정·촌에서 소액 출자한 것이다.

매출액은 2004년 946,742,000엔으로 연간 약 10억 엔 가량이며, 유지비 또한 이와 같은 수준인 927,197,000엔으로 약간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J빌리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축구를 통한 스포츠 진흥과 교류인구의 확대를 통한 지역진흥에의 공헌”이라는 취지로 운영함을 감안한다면 의미 있는 시설운영 이라고 할 수 있다.

**J빌리지 2004년도 수지와 사업과제**

2004년도의 수지와 관련하여 수익은 시설이용료, 숙박요금수입, 협찬금 등을 합쳐 전체 9억 4,674만엔으로 전년도 7억 9,672만엔과 비교하여 1억5,002만엔이 증가하였다.

증가원인은 주로 숙박자가 적은 9월에 AFC U-17 아시아대회, 스포츠 마스터 축구경기, 후쿠시마현 케이트볼 대회의 개최 등에 의한 큰 폭의 수입 증가와 함께, 연중 숙박자가 증가함과 아울러, 동경전력 여자축구부 설립준비업무 및 겔즈8(U-12) 축구



건물 전경



체육시설



잔디구장



축구박물관



J빌리지 상품 판매관



J 빌리지 상품관



J 빌리지 상품관

페스티벌의 운영 등을 J빌리지가 수탁하여,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평일이용 확대를 위해 럭비 일본대표(4회, 728명) 및 럭비 톱(Top)팀의 합숙(3팀 총4회, 996명)을 비롯해, 대학의 육상부(1교, 187명), 미식축구부(1교, 153명) 등 타 스포츠팀의 유치 및 이용, 지역 골프장과 제휴한 골프팩을 설치하여 142명의 숙박실적을 올리는 등 영업활동에 주력한 것이 숙박자 증가의 요인이 되었다.

한편 비용은 작년처럼 업무코스트의 절감, 업무의 과소를 상정한 최소한의 요원배치 등 업무의 효율화에 노력하였으며, 숙박자 증가에 따른 정비증가와 동경전력 여자축구부 설립준비업무 등 수탁에 따른 정

비의 증가로 9억 2,719만엔을 지출하여 전년도 8억 1,512만엔과 비교해서 1억 1,207만엔 증가하였다.

그 결과, 손익은 차액 1,954만엔(법인세, 전기이월손실 총당 후 472만엔)의 흑자로 작년도의 적자분을 해소하고 현예금잔액은 4억 3,292만엔(전년도말 4억 6,131만엔)이다.

이후 2005년도의 사업수지 개선을 위해 200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평일의 이용자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획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종업원들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수지개선을 도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축구선수 및 축구 애호가들의 대회 등에 의한 이용 확대와 천연잔디구장의 양생기와 평일에 다양한 활용을 추진하고 「스포츠 존」사업운영을 포함한 축구이외의 스포츠 유치를 추진하였으며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피트니스 클럽 등의 운영으로 수지 개선노력을 하였다. 또한, 2005년도의 L리그에 신규진출하는 동경전력여자축구부(애칭:마리제)의 운영을 수탁하여 이를 활용한 이벤트와 스폰서 계약, 상품의 제작·판매 등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했으며 지역의 자치단체 및 축구협회의 협력과 자원봉사제도 등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 J 빌리지 방문객 현황

2004년도 J빌리지에는 463,352명(전년도 450,813명)이 방문 및 이용하여 후쿠시마현 후타바군의 지명도 향상과 지역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중 70%는 축구와 관련된 시설 이용을 위한 방문객이며, 30% 정도는 순수하게 리조트 시설 자체를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이곳을 찾고 있다.

일반인 축구 이용객은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초등학교생으로부터 사회인까지 각 층으로부터 폭넓게 이용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전년도를 넘어서 607팀(전년

도 546팀)이 이용하였고 공식이용과 합치면 전체 1,091팀의 선수 및 애호가들이 천연잔디구장을 이용하였다.

또한, 연 2~4회 축구 대표팀이 시설을 공식 이용하고, 중고 축구대회나 어린이 축구교실과 삼판, 코치 양성 과정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어 축구 관련자 이외에 일반인들도 이 시설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주말은 거의 모든 시설이 만원이 되고 있고 시설만족도 또한 높은 편이어서 한번 J 빌리지를 찾은 사람들의 70%가 재방문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이 지역을 지나는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인근의 히로노마찌에 인터체인지가 생기면 J 빌리지를 찾는 방문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교류인구 확대에 따른 지역사회 진흥에의 공헌**

J 빌리지에는 1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가 후쿠시마현의 인근 6개 시·정·촌 출신이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구내의 레스토랑에서는 연간 1억 7천만 엔 가량 재료가 소요되는데, 이 중 90%를 후쿠시마현 내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또한 후쿠시마현 구입 분 중에서도 60%를 J 빌리지가 위치한 나라하마치와 히로노마치에서 조달하고 있다. 또한 축구대회 개최시에 지역에 발주하는 도시락의 수는 합계 1만3,151개(전년도 1만1,427개)였으며 레스토랑이용자수는 계절별로 실시한 특색있는 바이킹(부페)과 각종 연회플랜 등을 적시에 제공하여, 연간 6만 9,359명(전년도 5만 8,298명)이 이용하였다.

방문객들이 J 빌리지의 시설뿐만 아니라 이 일대의 여관 등 숙박시설을 이용하면서 주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도 무시할 수 없다. 5년간 약 8만 명 가량이 주변의 각종 편의시설들을 이용했는데, 대략 전체적으로 볼 때 약 8억 엔의 수입이 이 일대에 돌아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4년도의 숙박객수는 전년도 실적을 크게 웃도는 4만 7,360명(전년도 4만 2,864명)에 달하며 이에 따라, J 빌리지의 숙박을

J 빌리지 2004년도 수지에견표 (단위: 천엔)

항 목	금 액
수익계	946,742
입장, 레크리에이션수입 등	102,571
호텔, 레스토랑수입 등	647,746
공식스폰서료	18,233
기타수입	15,189
비용계	927,197
위탁비	436,816
임대료	98,003
상환수입	32,957
인건비	64,919
수도광열비	83,947
소모품비	58,841
광고전달비	2,880
숙련비	40,735
간가상관비	8,515
기타비용	36,457
당기계상이익	19,543
법인세 등	(7,299)
신기이원손실	▲ 11,826
당기결손이익	4,720

자료: J 빌리지 2004년도 경영보고서  
각각의 항목에서 천엔 미단은 버리고 표시



J 빌리지의 각종 스폰서



J 빌리지 홍보데스크

은 연간평균50%(전년도 45%)로 증가하였다. 또한 여름방학기간을 중심으로 지역어관조합의 숙박알 선수가 1만 4,000진(전년도 1만 2,830진)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 이외에도 J 빌리지 내의 수영장,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을 인근 주민들은 연 4만 엔의 가격에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피트니스클럽이용자 및 축구클럽·스쿨, 스위밍클럽 참가자 수는 5만 4,464명(전년도 5만 3,911명)에 달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 J 빌리지사업의 시사점

후쿠시마현은 동경전력의 전력 생산 중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지역이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전력회사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J 빌리지라고 할 수 있다. 시설 투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후의 관리와 운영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제이며 이런 점에서 지속적으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국가대표팀의 연습장으로 이용되도록 일본 축구협회와 긴밀한 협조 아래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일본은 발전사업이 민간주도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각 발전사업자 간 경쟁 및 서비스 강화로 발전소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혐오감 및 피해의식이 없었으며 특히, 동경전력은 상당한 비용을 홍보비로 사용하여 어린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기와 발전시설의 필요성을 각인시켜 발전시설이 공익과 복지시설임을 인식토록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발전소시설이 각종 보안관련 법률로 인하여 지역민 및 외부인의 탐방 및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런 보안분제로 주민들이 발전시설에 대한 의구심과 반감을 가지고 있다. 향후 국가적 중요시설인 발전소가 건설된 것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책 마련과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발전소의 노력이 매우 시급하다. 또한, 주변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지원사업비의 운영에서도 마을별 별도의 지원사업보다는 중·대규모의 공용시설을 조성하여 주변지역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